

나는 잘났다...소극적인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17개 시·도 초중교·체육관·공원 등 90곳에 지도자 파견 국학기공 보급 권경래 강사 “산만한 아이 차분해져” 손정향 교감 “자존감 향상에 큰 도움”

“자! 이제 단전 두드리기를 할 거예요. 시~작!”

“나, 는, 행, 복, 해, 팡팡!”

“나, 는, 잘, 닳, 다, 팡팡!”

서울 성북구 서울삼선초등학교 교실에서는 아이들의 국학기공 수업이 한창이었다. 강사의 구령에 맞춰 두 손으로 조그만 아랫배를 팡팡 두드리는 아이들이 귀엽기만 하다.

대한체육회의 정회원단체인 대한국학기공협회(회장 권기선)는 지난해부터 전통스포츠보급사업을 진행 중이다.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스포츠이자 심신건강법인 국학기공을 보급하고 국민 건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대한국학기공협회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등학교, 체육관, 공원 등 90곳에 지도자를 파견해 주 1~2회 국학기공 수업을 열고 있다.



서울삼선초등학교 아이들이 강사에게 국학기공 수업을 받고 있다. 국학기공은 아이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함양, 자존감을 높이는 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윤종혁 PD jh-yoon@donga.com

강사와 수강생 포함 2000명 가까운 인원이 참여하는 알짜 프로젝트이다.

서울삼선초등학교에서는 1, 2학년 저학년 아이 대상의 돌봄교실 프로그램으로 국학기공을 채택했다. 20명 가까운 아이들이 전문 강사에게 국학기공을 배우고 있다. 학기 중에는 매주 금요일마다, 방학 기간에는 수요일과 금요일 주 2회, 한시간만 수업을 총 48회 진행한다.

권경래 강사는 “처음엔 힘들다고 자꾸

앉으려고만 했던 아이들이 지금은 힘이 붙어 끝까지 잘 하고 있다”며 “소극적인 아이들은 자기 목소리를 조금씩 내고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산만한 아이들은 차분해지는 것이 보인다”고 했다.

아이들도 “국학기공이 재미있다”는 반응이다. 수업을 받고 있는 2학년 학생들인 최지원, 이빛나, 박규민은 “친구들이랑 같이 해서 더 재미있다”며 입을 모았다.

심신건강관리에 뛰어난 효과를 인정받

고 있는 국학기공은 아이들의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오랜 기간 국학기공 수련을 해오고 있다는 이 학교 손정향 교감은 “국학기공은 몸과 마음은 물론 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운동이다. 국학기공을 배운 아이들에게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존감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견된다”며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일수록 다른 친구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강하다”고 했다. 양형호 기자 ranbi@donga.com

챔프 꿈 이뤄지던 날...김민우의 ‘2640’

(18세 소년이 꿈을 이룬데 걸린 날들)

로드FC 052서 서브미션으로 승리 타격왕 문제훈 꺾고 뱀텀급 뉴챔프 김민우 “상상이 현실로...꿈만 같아”

ROAD FC ‘2640일.’

18살이었던 한 소년이 챔피언 벨트를 허리에 두르며, 꿈을 이루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로드FC 뱀텀급 5대 챔피언에 오른 ‘코리안 모아이’ 김민우(26·모아이집)의 이야기다.

김민우는 2011년 12월 3일 로드FC YOUNG GUNS 1을 통해 데뷔했다. 멀고도 험한 길을 돌아온 그는 지난 23일 열린 굿네몰 로드FC 052에서 ‘타격왕’ 문제훈(35·옥타곤 멀티집)을 꺾고 뱀텀급 챔피언에 등극했다.

새로운 챔피언이 탄생할 경기가 시작되고, 거리를 재단 김민우와 문제훈은 본격적으로 서로의 얼굴에 주먹을 내리꽂으며 미소를 지었다. 눈빛을 주고받으며 ‘더 해보자’고 말하는 듯했다. 몇 차례 주먹을 주고받던 중 김민우는 문제훈을 그라운드 싸움으로 끌고 갔다. 끈질기게 문제훈을 움아매며 숨통을 조였고, 결국 뺨을 받아내며 승리 기쁨을 누렸다.

김민우는 26일 “항상 상상만 하왔던 그

장면이 정말 이뤄지니까 꿈만 같았다. 이기자마자 형들한테 달려가서 ‘이거 꿈이야?’라고 물어봤다”고 말했다. 이어 “형들이 ‘꿈 아니니까 집중해. 너 지금 챔피언이야’라고 하더라. 끌어안고 계속 오열했다”고 돌아봤다.

경기 중 미소를 지었던 이유에 대해 묻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다. 지든 이기든 이번이 마지막이니깐 피 터지게 싸우고 싶었다”며 “원래 사람이 맞으면 두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느껴지는데 그 순간에는 그저 즐거웠다. 정말 미친 것처럼 ‘아 오늘 피 터지게, 재밌게 싸우자. 빼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경기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승부를 결정지는 그라운드 싸움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을) 다 생각했다. 클린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습했던 것을 그대로 했는데 잘 풀렸다. 그래서 그대로 유지했고, 그 상황 이후 서브미션까지 잘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챔피언의 꿈을 이룬 김민우는 이번 타이틀전 준비로 잠시 소홀했던 체육관 운영에 다시 집중할 계획이다. 또 많은 도움을 줬던 주변인들에게도 보답하며 시간을 보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은상 기자 award@donga.com



굿네몰 로드FC 052에서 뱀텀급 타이틀을 차지한 뒤 활짝 웃고 있는 김민우.

사진제공 | 로드FC

스포츠토토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 결과

프로농구 <26일>						
●2018-2019 SKT 5GX KBL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1	현대모비스	46	35	11	0.761	0
2	전차번드	45	31	14	0.689	3.5
3	LG	45	24	21	0.533	10.5
4	KT	45	23	22	0.511	11.5
5	오리온	46	23	23	0.5	12
6	KCC	45	22	23	0.489	12.5
7	DB	46	22	24	0.478	13
8	KGC	46	21	25	0.457	14
9	SK	45	15	30	0.333	19.5
10	삼성	45	11	34	0.244	23.5

여자프로농구

●2018-2019 우리은행 WKBL 팀순위 <26일>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1	KB스타즈	31	25	6	0.806	0
2	우리은행	31	23	8	0.742	2
3	삼성생명	32	18	14	0.563	7.5
4	OK저축은행	32	12	20	0.375	13.5
5	KEB하나	31	11	20	0.355	14
6	신한은행	31	5	26	0.161	20

프로배구

●도드람 2018-2019 여자프로배구 팀순위 <26일>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실점
1	흥국생명	26	18	8	54	2170
2	도로공사	26	17	9	48	2295
3	GS칼텍스	28	17	11	48	2335
4	IBK기업은행	27	15	12	46	2312
5	현대건설	28	9	19	29	2164
6	인삼공사	27	5	22	18	1983

NBA

●경기결과 <26일>						
필라델피아	111-110	뉴올리언즈	밀워키	117-106	사카고	
디트로이트	113-109	인디애나	휴스턴	119-111	애틀랜타	
피닉스	124-121	마이애미	미네소타	112-105	새크라멘토	
멤피스	110-105	LAL	골드스테이트	121-110	살럿	
포틀랜드	123-110	클리블랜드	브루클린	101-85	샌안토니오	
LAC	121-112	댈러스				

아마추어 경기결과

●제 55회 KBSN배 춘계 대학 축구연맹전(경남 통영) <26일>						
●제 55회 춘계 한국고등학교 축구 연맹전(경남 합천)						
●결승전=오산고(우승) 2-1 천안제일고						

해외축구

●프리메라리가 <26일>						
팀	경기수	승점	승	패	무	득점
1	바르셀로나	25	57	17	2	6
2	AT마드리드	25	50	14	3	8
3	레알마드리드	25	48	15	7	3
4	헤타페	25	39	10	6	9
5	세비아	25	37	10	8	7
6	알라베스	25	37	10	8	7
7	베티스	25	36	10	9	6
8	레알소시에다드	25	35	9	8	8
9	발렌시아	25	33	6	4	15
10	빌바오	25	33	7	6	12
11	에이바르	25	31	7	8	10
12	레가네스	25	30	7	9	9
13	레반테	25	30	8	11	6
14	에스파뇰	25	30	8	11	6
15	지로나	25	28	6	9	10
16	바야돌리드	25	26	6	11	8
17	셀타비고	25	25	6	12	7
18	비야레알	25	23	4	10	11
19	라요바예카노	25	23	6	14	5
20	우에스카	25	19	4	14	7

●프리메라리가 경기결과

지로나	0	-	0	레알소시에다드
-----	---	---	---	---------

●분데스리가 경기결과

라이프치히	1	-	1	호펜하임
-------	---	---	---	------

경기 예고

여자프로농구 <27일>		
●2018-2019 우리은행 WKBL		
신한은행	〈인천도원〉	우리은행
오후7시, SPOTV2		
프로배구 <27일>		
●도드람 2018-2019 여자프로배구		
도로공사	〈김천실내〉	인삼공사
오후7시, SBS스포츠		
IBK기업은행	〈화성종합실내〉	흥국생명
오후7시, KBSN스포츠		

아마추어 경기예고

축구 <27일>		
●제 55회 통영배 춘계 대학 축구연맹전(경남 통영, 오후2시)	●결승전=성균관대-중앙대	
●제 21회 백운기 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광양)	●8강=전주영성고-매탄고, 수원FC-광양제철고(이상 오전10시), 금호고-영동포공고, 안양공고-KHT 일동(이상 오전11시40분)	
테니스 <27일>	●2019년 여수오픈 테니스대회(전라남도 여수시 진남체육공원)	